

석사학위 청구논문

스포츠 참여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ort Participa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지도교수 : 임 상 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윤 상 택

1995년 8월

스포츠 참여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任 尚 鎔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體育教育 專攻

提出者 尹 尚 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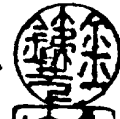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尹 尚 澤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5年 7月 日

審査 委員長

金 鐵 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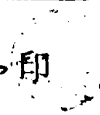
審査 委員

金 升 坤



審査 委員

任 尚 鎔



목 차

I.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 문제	3
4. 용어의 정의	3
5.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6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6
2.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이론	7
3. 비행의 억제책으로서 스포츠의 가치 및 기능	17
4. 선행연구	26
III. 연구 방법	30
1. 표집	30
2. 측정도구	30
3. 자료수집 및 처리	34
IV. 연구결과	36
1. 성별 학교수준에 따른 선수와 비선수의 비행수준 분석	36
2. 경기지위와 성에 따른 비행행동과 관련변인들의 관계 분석	37
3. 비행수준을 예측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기여도 분석	39
V. 논의	44
VI. 결론	48
참고문헌	50
Abstract	56
부록	59

표 목 차

<표-1> 연구대상의 특성	30
<표-2> 선수와 비선수간의 비행수준의 차이	36
<표-3> 성별에 따른 선수와 비선수의 비행수준의 차이	36
<표-4> 학교수준에 따른 선수와 비선수의 비행수준 분석	37
<표-5> 운동경기 참여와 성에 따른 비행행동과 13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37
<표-6> 선수와 비선수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40
<표-7> 남자선수와 비선수간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41
<표-8> 여자선수와 비선수간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42



그림 목 차

<그림-1> 개인의 적응양식	9
<그림-2> 차별접촉 이론의 요약 (Sutherland, 1970)	11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는 산업기술의 발달과 경제규모의 확대로 소득수준의 증가, 물질적 풍요, 교육기회 및 여가의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일반국민의 생활수준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청소년에게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향락주의와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및 가치를 형성시켜 청소년의 이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다.

오늘날의 청소년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약화, 학교교육의 권위저하 및 사회의 교육적 무관심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일탈행동을 보이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효과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조직화시키는 문제는 과거 수 년 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은 비행의 억제책으로서 운동경기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가치, 태도, 사회적 기능을 전달하여 주는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그 영향이 지대하다(Educational Policies, 1954.). 이는 조직화된 놀이 체계로서의 스포츠가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내면화시켜주는 중요한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스포츠의 비행억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해온(Burhman, 1977; Segrave, 1980)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의 부족으로 의구심을 표명하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었다(Brandemas, 1955; Yiannakis, 1980).

스포츠 참가와 비행의 관계는 아직 관계가 확립되고 있지는 않지만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관점이다. 이는 스포츠 참가자 개인의 사회화에 긍정

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로서 스포츠 참가자는 비참가자보다 비행정도가 낮으며 스포츠 참가자의 가치, 태도, 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다(Schafer, 1969). 즉 스포츠 프로그램의 참가는 건강증진, 정서발달, 그리고 사회성과 도덕적 가치함양에 공헌하며 사회화의 긍정적인 방법으로써 비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스포츠는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 역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실제적으로 조장하고 유발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 Thrasher(1963)는 스포츠 참가와 운동경기를 전형적으로 비행행동을 유발시키는 조직적인 체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Luschen (1976)은 스포츠 참가자는 스포츠 내에 구조적 또는 문화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인가된 폭력, 공격, 규칙위반 등과 같은 비행행동을 습득하며 내면화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이다(구창모, 1990)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징으로써 스포츠와 비행의 관계를 보다 깊이 통찰하는 것, 즉 스포츠 참가자들이 어떻게 비행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가, 혹은 어떻게 비행화가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김관훈,1987. 정영린, 1987. 구창모, 1990).

특히 국내에서는 스포츠 참가와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연구 결과의 경험적 제약성 때문에 순수한 구조적 전통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스포츠 참가와 비행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는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스포츠 참가와 비행에 관한 연구 영역이 사회적 집단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스포츠 참가와 비행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 심리적 과정(sociopsychological process)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스포츠 환경적인 측면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구창모(1990)의 연구에 따르면 체육환경의 변인이 비행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 요인을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스포

츠 참가와 비행연구에 있어서 문제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사회심리학적 과정과 체육환경적 변인 및 사회 경제적 변인들을 스포츠 내에서 경험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참여와 청소년의 비행 행동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역동적인 과정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참가, 소속집단에 대한 애착, 자아개념, 권태, 비행접촉, 비행적 가치, 스포츠에 대한 가치 등의 사회 심리적 변인들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기여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스포츠 내의 비행이론이 합축하고 있는 기본 가정을 규명하여 스포츠와 비행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 1) 배경변인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 2) 경기지위와 성에 따른 비행과 관련변인들의 관계
- 3) 비행수준을 예측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

4. 용어의 정의

- 1) 스포츠 참가 : 다양한 스포츠 현상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동

으로서 참가의 방법, 시간, 장소에 따라 참가의 유형이 달라지며, 또한 참가 유형은 참가의 수준, 형태, 정도에 의해 구분 되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 참가의 빈도 및 간접 참가의 수준과 관련된 것만을 지칭한다.

2) 소속 집단에 대한 애착 :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타인이나 집단의 견해 및 감정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심의 정도와 느끼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

3) 비행접촉 : 사회화 과정을 통해 비행 동료로부터 일탈적 태도, 가치, 동기, 충동 등을 학습하여 비행 집단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4) 비행적 가치 : 비행에 대하여 얼마만큼 허용적으로 판단하느냐 또는 비행적 상황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등의 비행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인식을 뜻한다.

5) 청소년 비행 : 법률적으로 규정된 객관적 일탈행동 뿐만 아니라 공공의 사회적 가치 체계를 침범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되는 부도덕 행위까지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6) 자아개념 :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나 평가로서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신념의 체계를 의미한다.

7) 권태감 : 할 일이 없다고 느끼거나 지루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지칭한다.

8) 스포츠의 가치 : 보통사람들의 스포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는 중요한 감정체계로서 사람들의 행동을 방향짓는 기본적인 힘을 말한다.

5.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제주도에 있는 중·고등학생에게만 한정하였다. 따라서 모집단이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2. 본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시 나타나는 사회적 선회도(social desirability) 효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응답자들의 가상적인 대답, 과장된 즉흥적인 응답 등 선회도 효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다.

3. 현존하는 비행 측정 척도의 표준화와 객관화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행행동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13문항의 비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합하여 종속측정치로 활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일반적으로 비행(Delinquency)이란, 광의의 의미로는 모든 반사회적 행위를 지칭하지만 협의로는 청소년 비행을 뜻하며, 비행으로 생각되는 행동의 개념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범위가 일정하지 않고 특정 시대와 국가, 또는 사회의 도덕과 전통, 그리고 관습에 따라 관점을 달리하고, 같은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그 견해가 상이하다.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행위를 규제하고 범규범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공공의 가치체계를 침범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도덕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Durkheim(1951)은 비행 현상을 규범적 질서에 토대를 둔 규제력의 결핍(deregulation) 혹은 규범해체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기능적 상호의존에 의하여 통합된 사회는 일종의 제약된 사회이므로 기능적 상호의존성의 규칙을 어긴 것은 범죄라기 보다는 오히려 규칙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Parsons(1951)는 행위가 일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련의 기대로부터 일탈적이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어떠한 특정 행위를 일탈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범적인 준거점과 관련지어 평가되는 점을 강조하였다.

Cohen(1959)은 비행을 사회체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공유되고 있는 제도적 기대를 위반하는 행동으로 정의하면서, 비행 또는 범죄를 포함하는 사회적 일탈은 규범적 측면에 위배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구창모,1990). 특히 Becker(1963)는 한 개인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에 반응하

는 것을 타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도덕한 행위의 숨은 비행까지 비행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Cloward와 Ohlin(1966)은 일탈 행위란 사회의 기본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와 같은 행위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경우는 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Merton(1968)은 비행행동을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간의 괴리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구창모,1990).

Hirschi(1969)는 한 개인에 관련된 행위가 사회의 지배계급에 의하여 규정된 규범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서 간주될 경우, 이러한 행위를 비행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 비행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 범죄, 법에 저촉된 행위 등의 비행을 의미하고 있으며, 소년 경찰의 보호 대상에는 불량소년과 요보호소년도 포함시키고 있다(청소년백서, 1988). 이상의 문헌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은 내용상으로는 형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음주나 흡연 및 무단결석,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문제의 청소년 등, 법률적으로 규정된 일탈 행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사회적 가치체계를 침범하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되는 부도덕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2.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이론

1) 아노미 이론 (Anomie Theory)

아노미(Anomie) 이론이란, 무 규범(normlessness)상태라는 뜻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할 때 신.구 규범의 갈등 현상이 나타나며 이때 전통적 규범은

약화되고 상승된 인간의 욕구를 비규범적 또는 반규범적 상태로 충족하려는 현상이다. 이 이론의 창시자인 Durkheim은 아노미 현상을 규범의 부재 또는 법률의 부재 상태로 파악하고, 자살이나 일탈행위의 원인은 사회의 결속력 상실 혹은 약화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Durkheim 이후 미국의 사회학자 Merton은 아노미 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종류의 일탈행동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여 자살뿐만 아니라 범죄, 비행, 정신적 질환, 알코올 중독, 혁명적 변화 등을 설명하는 일반체계 이론의 정립에 이 개념을 적용하였다 (Merton, 1968, pp.185-248). Merton은 사회적 현실태(social reality)를 두가지로 구분하여 아노미를 문화적 목표(cultural goals)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기회(socially structured opportunity)간의 불일치 현상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Merton은 개인이 사회적 기능을 완전하게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목표와 이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 문화적, 제도적 한계가 긴장을 일으키게 하며 긴장의 강도가 커질 때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시에 많은 규범이 요구될 때 Anomie현상(규범이 없는 상태)이 촉진된다고 했다. 따라서 개인에게 주어진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며 일탈행동의 개인적 적응형태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그림-1>과 같은 형태를 제시하였다. Merton은 Durkheim과 달리 첫째, 인간의 욕망이 무제한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문화에 의해 그 상한선이 그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둘째, Durkheim은 아노미를 급격한 사회 변동의 산물로 보아 감정적 현상으로 간주했으나 Merton은 문화와 제도의 속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노미를 장기적 만성적 현상으로 보았다. 셋째, Merton은 사회통제의 약화나 붕괴에만 관심을 쏟지 않고 나아가 목표와 수단간의 괴리가 곧 아노미를 지시하며 이것은 사회계층과 반비례 한다고 보았다(한완상, 1973; 김관훈, 1987).

사회 내에서의 구조적 역기능이 사람들에게 목적 - 수단의 괴리를 가져오고 이러한 괴리가 일탈로 표출되는 스트레스를 야기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역기능이 높은 사회는 일탈율도 높다는 것이다.

<그림-1>. 개인의 적응양식

적응형태	문화적목표	문화적수단
동조형(Conformity)	+	+
혁신형(Innovation)	+	-
의례형(Ritualism)	-	+
패배형(Retreatism)	-	-
반란형(Rebellion)	±	±

Key: += acceptance; -= rejection

(Robert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Glencoe, Ill., Free Press, 1957)

이상과 같은 Merton의 견해로부터 청소년 비행을 이해하는데 주도적 이론이 되어온 아노미 이론의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고 있다. 첫째, 현실적인 원망으로서의 회구(wish)간의 원망격차 변수와 둘째, 문화목표를 달성하는데 정당한 수단으로서의 기회 또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이용 불가능한 (어느정도 제약되어 있느냐하는) 문제인 제약인지 변수를 들고 있다 (한완상, 1971; 김관훈, 1987).

현대사회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높은 수준의 원망을 품도록 자극하고 있다. 이는 사회가 개방화, 산업화 및 도시화됨에 따라 기성세대의 계층에 의해 억눌렸던 청소년들의 원망이 부모의 현재 지위보다 높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전통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사회 이동이 미미한 폐쇄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원망이 자기의 계층을 초월하기가 힘들다. 이것은 부모의 직업이 자식의 미래 지위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원망의 상한선은 가족의 사회적 신분으로 분명히 그어지게 된다.

그러나 사회가 개방화 및 도시화됨에 따라 기성세대의 계층에 억눌렸던 청소년의 원망이 풀리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이동이 활발한 개방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미래지위가 현재에는 획득되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기 부모의 현

재 지위보다 높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여기에 청소년의 원망 수준과 부모의 지위 수준간의 격차가 생기게 된다(한완상, 1973; 김관훈, 1987). 오늘날 청소년들이 갖는 고뇌와 일탈을 이해하는데 이 격차가 어떠한 유용성과 의미를 갖고 있는가?

Turner(1964)는 현대 청소년의 원망에 대한 두가지의 다른 사회적 지위를 지적하고 있다. 그 하나는 청소년 자신이 원망하는 지위로서 종착지위(the stratum of destination)와 다른 하나는 부모의 지위로서 원천지위(the stratum of origin)이다. 그에 의하면 청소년은 자기의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자기가 장차 어떠한 지위를 가질 것이며, 어떠한 계층에 속할 것이냐 하는 바램(원망)이 그가 현재 어떠한 계층, 즉 부모의 계층에 속해 있느냐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Turner,1964; 김관훈, 1987). 상승적 사회 이동을 제도적으로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야심 있는 청소년들은 아래와 같은 두가지 차원에서 미래지위를 원망하고 있다. 첫째, 현실적인 원망으로서의 기대 혹은 계획과 둘째, 이상적인 원망으로서의 회구이다. 이 같은 원망의 양면성에 대하여 청소년 비행은 문화 목표와 제도적 수단간의 괴리에서 이해하려는 아노미론자들은 이상적인 원망인 회구를 문화 목표의 내면화에서 오는 미래 지향적인 태도로 보고 있다(한완상, 1971; 김관훈, 1987). 즉 회구된 미래지위가 문화목표를 반영하고 기대된 미래지위가 문화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지시한다면 원망 격차는 Merton이 말하는 문화목표와 수단간의 격차가 그러하듯이 청소년의 일탈성향과 일탈행위에 연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한 원망격차를 느끼는 청소년들은 현실화될 수 없는 욕구나 꿈을 갖도록 격려하는 기존 체제로부터 그 어떤 격리감 또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비록 그것이 규범에서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도 채택하고 싶은 심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2) 차별접촉 이론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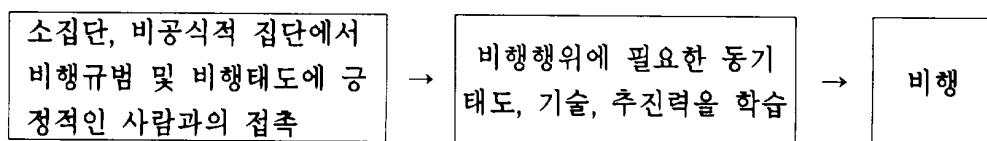
차별접촉 이론은 본격적인 산업화, 도시화, 대규모 이민과 함께 도시의 생태적 환경의 급진적 변동에 기인한 이질적 문화 규범 및 가치관의 불가피한 갈등을 깊이 인식한 이론이다.

문화적 가치에 대한 합의에 의해서만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본 Sutherland의 차별접촉 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기본 명제를 갖고 출발한다. 첫째, 인간은 비행성향(deviant predisposition)이 없으며 오히려 규범 동조적 존재이다. 둘째, 사회적 분화가 일어나면 문화적 분화가 수반되어 문화 갈등 현상이 나타난다. 그에 있어서 문화는 비행과 범죄의 정의를 규정하는 구체적 문화 규범이고, 따라서 문화 갈등은 비행에 관한 정의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간 갈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위 비행자 혹은 범죄자는 그 자신이나 그가 소속된 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조자이나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권력 집단의 문화적 규범에서 볼 때는 비행자라는 것이다. 즉, 비행의 원인은 어떤 행동이 범죄 혹은 비행인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하위문화들 간의 갈등에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된 Sutherland의 차별접촉 이론은 생물학적으로 유전되거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학습되는 일탈행동에 대한 긍정적 표현이라고 가정하고 그 인과 구조를 <그림-2>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그림-2> 차별접촉 이론의 요약 (Sutherland, 1970)



<그림-2>에 의하면 비행행위란 다른 사회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학습된 행위이며, 인간은 비행 문화 또는 위법적 기회

와의 접촉이 비비행적 문화의 접촉을 능가할 때 비행자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차별접촉 이론의 기본 전제를 검토해 볼 때 세 가지 약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Sutherland가 문화 갈등을 사회적 분화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본 점에 있어서 그는 구조결정론자이다. 그러나 구조라고 할때의 “구조”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가 아니라 문화적 구조이며, 비록 그가 법은 권력 집단을 위한, 권력 집단에 의한 도구라고는 하나, 그의 이론은 문화와 사회구조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권력 집단이며 왜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Kornhauser,1984; 구창모, 1990). 둘째, 문화적 가치나 규범에 대한 합의에 의해서만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인간이 그가 소속된 하위집단의 문화적 가치에 동조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강압적 수단에 의한 온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 사이에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이 있다. 셋째, Sutherland는 인간을 수동적 수용체(passive recipients)로 본 점에 있어서 Glaser같은 다른 문화전파 이론가와 다르다. Glaser(1976)의 주장에 따르면, 학습은 공간적 밀착보다 주관적 애착이 있는 동일시에 큰 영향을 받고, 환경적 근접성에 의한 우연적 요인보다 심리적 동일시에 의한 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므로 소속된 하위집단의 문화 규범과 가치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차별적 동일시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차별접촉 이론의 주장은 많은 약점이 있다.

3) 자아개념 이론 (Self-concept Theory)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의적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아개념(self-concept)은 James(1890)가 자아(ego) 또는 자기(self)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후부터 개인의 성격을 논하는데 자아개념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과 적응을 통제하고 있는 심리적 과정으로서의 자아, 즉 과정으

로서의 자아(self as process)이다. 둘째,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의 총합체로서의 자아, 즉 대상으로서의 자아(self as object)이다. 전자는 대개 정신분석학자들인 Freud나 Jung 등이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이드(Id)와 초자아(Superego)와의 중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아에 강조를 두는 반면, 후자는 사회심리학자인 Mead나 Festinger 등이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런 사회학적 입장에서의 자아개념의 발달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 Mead(1934)는 자아개념은 사회적 통제의 사회작용 속에서 타인과의 특별한 혹은 일반적 관계에서 역할수행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그는 인간의 자아개념이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taking the role of others)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자아형성 과정은 준비단계(preparatory stage), 유희단계(play stage), 게임단계(game stage)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준비단계에서는 무조건적 모방을 통해 타자의 역할을 담당해 보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며, 유희단계에 이르러 구체적인 중요한 타자들의 입장에서 자기를 조명해 보게 된다. 이때는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자아 이미지(self image)라는 집단성원들에 공통되는 관점을 구축하게 될 때 다소 일관되고 안정된 자아관이 형성된다. 이제는 자기의 정체의식(self-identity)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면한 국부적이고 현재적인 상황을 초월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일관성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정태복,1982; 김관훈,1987). 그리고 Fitts(1971)는 자신의 세계에 대한 개인적 상호행위를 통한 하나의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으로써 자아개념은 인간행동을 통제한다고 보았다(Fitts,1971; 김관훈, 1987).

이상에서 살펴본 자아개념 이론의 특성을 요약하면 자아개념은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태도나 느낌의 총체로서 자아는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개념은 결국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아체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아체제로서의 자아개념은 그 개인의 행동경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자기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며 주변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자아개념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기서는 사회적 부적용 행동으로서 일탈행동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개념을 일탈행위의 원인으로 보는 Mead(1934)의 반영된 평가의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타인들의 눈을 통하여 자기를 본다는 것이므로, 만일 일탈행위로 인하여 남들이 자기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보아 낮은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한 범죄나 비행과 같은 부적용 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대하여 Sherif와 Cantril(1947)은 자아가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할 때 개인은 일탈행위에 의해 그의 불안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하여 자아의 항상성과 안정성의 결여가 일탈행위와 같은 부적용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Reckless와 Dinitz(1967)도 그의 억제이론(containment theory)에서 긍정적 자아개념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행 친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절연체(insulator)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아개념은 사회적 소산(social product)이면서 또한 인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세력으로 고려되므로 비행의 원인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의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비행의 원인을 자아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로서 김영길(1967)과 구경모(1977)는 정상과 비행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연구에서 비행 청소년은 정상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행동은 그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개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인성의 핵심을 이루는 자아개념이 강하게 발달하여 자기에 대한 가치의식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그의 행동에 안정성(stability)과 일관성(consistency)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생활을 가치있고 보람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자존심과 자긍심이 높으며 이에 따라

안정된 성격과 바람직한 행동특성을 소유하게 되어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자신을 쓸모 없고 무가치하며, 악하다고 생각하여 이런 자아체계에 따라 행동하게 되므로 스스로 자신을 확대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며 불안한 생각과 심리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동도 불안정하고 소극적이며 인간관계 형성도 원만하게 해 나가지 못하게 되어 일탈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 자아개념은 개인의 주위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모든 개념은 이미 형성된 자아개념과 관련하여 지각되고, 평가되고, 의미를 갖게 됨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생각이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집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용될 때 운동선수 개인의 자아개념은 상위 수준에서의 스포츠 자아개념이 그 구심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Rogers(1982)는 개인마다 각 수준에서의 자아개념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자아개념이 그 개인에게 위치하는 구심성(concentricity)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운동선수는 일반 학생과는 달리 스포츠 집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매일같이 계속되는 각종 훈련, 트레이닝, 합숙, 경기과정 등의 경험뿐만 아니라, 개인적 또는 소속집단 자체의 목표(승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행동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운동경기 결과나 중요한 타인인 교사(코치, 감독)가 평가한 운동 성적은 운동선수의 자아감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운동경기 결과나 교사(코치, 감독)로부터 높은 운동 성적 및 평가를 받게 되면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높게 지각하게 되며 낮은 운동 성적 및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낮게 지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아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능력에 대한 자아개념이 운동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일수록 운동선수의 운동성취도는

높아지고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운동선수의 운동성취도는 낮아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 사회통제 이론 (Social Control Theory)

사회통제 이론은 현대사회에서 만연된 소외와 비행 현상을 사회 해체 메카니즘으로 설명한 시카고 학파의 사회심리학적 이론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Liska, 1981) 시카고 학파의 사회학자들은 사회통제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사회생태학적 요인,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 일차적 집단의 인간 관계 쇠퇴, 규범적 갈등 등을 분석하였고, 사회통제 이론가들도 사회통제의 쇠퇴가 규범위반 및 비행으로 나타나는 과정과 원리를 분석하였다(구창모, 1990).

사회통제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통제는 크게 내적통제(inner control)와 외적통제(outer control)로 구별된다. 내적통제는 사회적 규칙과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통제를 뜻하며, 외적통제는 규범 위반자로 인정됨으로써 받게 되는 사회적 처벌과 기대되었던 사회적 보상의 상실을 의미한다. 사회통제 이론은 사람들의 비행 혹은 일탈 행동을 하지 않고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비행 동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적, 외적 사회통제 때문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규범준수의 행위를 정상적, 규범위반 행위를 비정상적이라고 전제해 온 종래의 비행 이론과는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면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회통제 이론의 정책시사는 비교적 분명하다.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 비행자이고 잠재적 범죄자이므로 친구, 부모, 교사 등과의 사회적 연대 혹은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면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사회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Hirschi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 비행을 강요하는 신념보다는 사회와의 연대감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의 비행을 금지시키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법률 위반

자라고 보고있다. 특히 그는 각기 다른 사회의 요소들이 습관적인 규범과 행동을 배제하는 별개의 독특한 가치체도를 유지한다고는 믿지 않고 오히려 사회의 모든 요소들 속에서 사람들이 사회규칙과 가치에 반응을 보이는 식으로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결국 하류 계급 뿐만 아니라 중산 및 상류계급에서까지도 사회에 대한 결속이 약한 사람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내용이다(표갑수,1986) 특히 Hirschi는 개인이 사회와 유지하는 사회결속의 요소를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관여(involveement), 신념(belief)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애착이란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견해와 감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를 의미하며, 전념은 규범준수에 대한 사회적 보상에 사람들이 어느정도 관심을 갖느냐에 관한 것이다. 한편 관여란 사람들이 관습적인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며, 신념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가고 있는 관습적인 규범이 어느 정도 내면화되었는가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구창모, 1990).

3. 비행의 억제책으로서 스포츠의 가치 및 기능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 활동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중요한 사회제도로서 장려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 볼 때 스포츠가 사회적 상황, 신념, 규범, 가치, 태도, 인지적 경험 등을 내면화시킴으로써 청소년이 갖고 있는 우발성이나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정화시켜 주고 더 나아가 신체와 정신의 균형 있는 조화적 발달을 가져오게 해 주는 사회제도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의 주요 가치는 건강, 인격형성, 사회생활을 준비시키는 훈련 등이다. 또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민주적 시민정신, 도덕적 인격, 기존권위에 대한 존중심 등과 같은 태도, 가치 및 행동이 형성 발달된다고 하였다(Leonard, 1980).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욕구를 갖고 있는 청소년에

게 비행의 억제책으로서 스포츠 활동이 갖고 있는 가치와 기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스포츠의 가치

일반적으로 가치란 특정상황의 규범적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것에 대한 사회적 평가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nyder and Spreitzer, 1983; 정영린, 1987). 현대 사회는 인구의 증가, 도시화, 급격한 사회변화, 기계 문명화 등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키고 다양화시키는 요인을 지니고 있다(김관훈, 1987). 따라서 현재 양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질적으로도 집단화, 포악화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실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성원으로서의 육성은 체육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스포츠의 가치를 신체적,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 등으로 분류하여 스포츠 활동에서 이들 가치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체적 가치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미분화에서 분화로, 분화에서 중심화를 거쳐 형태나 기능이 성장 발달한다. 물론 이것은 신체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적응하려는 생체의 노력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자극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신체활동을 아니할 수 없으며 그 신체활동을 통하여 성장 발달하게 된다 (주낙서, 1986; 김관훈, 1987).

특히 청소년기는 정신적, 신체적인 활동이 가장 많이 요구되며 신체적 활동의 욕구가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즉 청소년의 신체적 욕구는 마음껏 뛰고 활동해 보려는 충동에 가득 차 있으며 이의 충족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활동은 스포츠로 평가되고 있다(임번장, 1986; 김관훈, 1987).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의 신체적, 생리적인 형태 및 기능의 발달 측면은 물론 왕성한 체력의 유지, 증진 및 건강 향상이라는 본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2) 심리적 가치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육이 현저성의 원리에 지배되는 시기로서 신체적 발육의 속도가 빠르다. 이와 같은 신체적 발육의 빠른 속도는 심리적 불안정을 유발하며, 정서적 가변성의 개체 원인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국제 청소년 문화교류회, 1984, p.116). 따라서 그들의 정신세계 내에서 또는 현실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혼란과 불안정을 노출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청소년기는 가장 안정된 세계, 안정된 환경을 요구한다. 즉 청소년들에게는 안식처와 긴장해소 및 오락의 장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 및 정신건강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안락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스포츠 관련 지도자들은 (건강교사, 체육교사, 레크레이션 지도자) 정신건강이 신체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신체활동은 특히 유희적, 오락적 기능을 갖고 있고 정서적 휴식이나 창조성을 제공한다고 한다(Bucher and Goldman, 1969). 때문에 신체활동 및 스포츠의 장이 긴장해소 및 오락의 장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인간의 근원적 경향면에 관련하여 스포츠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은 생득적으로 일정한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은 근원적 경향(Original tendencies)을 발로되는 대로 방치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혼란 및 불안정을 유발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경향을 표출하지 못할 경우 욕구불만의 상태가 되어 이유없는 반사회적 행동과 반항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특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원적 경향을 합리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 스포츠 활동은 매우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경향의 표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긴장을 해소시키고 기분전환을 유도함은 물론 욕구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결과에 스포츠의 심리적 가치를 들 수 있다.

(3) 문화적 가치

인간이 갖고 있는 투쟁적인 충동과 그 표현은 중요한 본능적 활동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러한 충동에 대하여 만족을 구하려 함은 당연한 이치이며 청소년의 폭력행동이 그 한 예이다. 스포츠 활동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합리적으로 표출시키는 수단이므로 스포츠 참여의 기회는 투쟁본능의 충족을 위한 욕구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가 된다.

Greetz(1972)는 “스포츠가 사회학적으로 중요시되는 문화적 가치, 신분체제 및 기타 문화적 제 측면을 조망해 줄 수 있는 매체를 제공해 준다”고 강조함으로써 스포츠가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 문화적 가치를 전달해 주는 중요한 사회체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Ferdinand(1966)는 힘, 기술, 스피드와 경쟁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제도화된 스포츠는 남성의 용기와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현시적 수단임과 동시에 중상계급의 가치를 실제화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으며, 스포츠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팬들도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규범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dward, 1973). 이와 같이 스포츠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가 어떤 것이라는 점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를 조명해 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역할 및 과업을 요구하고 또한 허용된 제도하에서 목표를 향한 노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체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반영하고 전달해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Ulrich, 1968)

(4) 사회적 가치

가정, 학교 및 교우집단이 주 생활환경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경험반경이 좁을 뿐만 아니라 활동의 종류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 머물고 있다. 생산 활동이나 수입 활동과 같은 직업생활이나 사교활동의 경험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장면에 경쟁의 폭이 좁아 현실감각이 희박하고 사회적 성숙도가 낮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강하여 기성사회의 제도나 관습에의 동화성이 약하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사회적 미성숙으로 인

하여 자연히 현실 생활에 적지않은 부적응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감이나 불만감도 느끼게 마련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사회적응력 배양, 경쟁심 및 이타심 함양, 규칙존중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러한 특성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이다.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스포츠 활동은 가장 의미있는 활동으로서 시사된다.

스포츠는 바람직한 사회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수단이다. 개인이 이러한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인식하게 되는 최초의 지식이 경기에 대한 규칙이다. Wiss(1969)는 “규칙은 비교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을 수용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적응과 부적응의 행동적응 형태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의 참가자들은 규칙의 지배를 수용함으로써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규칙에 대한 공정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곧 사회에서의 합법성을 인정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방법이다.

한편, Bidduph(1954)는 운동경기의 성취도와 사회적응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스포츠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Bentson과 Summerskill(1955)는 대학 남자 신입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회적응과 스포츠에서의 성공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적응력의 배양이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은 건전한 경쟁심을 함양할 수 있다. 스포츠 활동 내에서의 경쟁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성을 포함한다. 첫째, 스포츠 참가는 인내심, 용기, 공격성 등의 복합적 의미를 발달시키는데 효과적이고 둘째, 스포츠는 매사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을 위한 생활준비의 수단이며 셋째, 스포츠 참가는 사회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는 시각적 예이며 아울러 리더쉽의 의미로써 민주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닌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Kennedy(1926)는 “청소년은 제공된 시간과 장소하에 있는 경쟁스포츠에서 강력한 상대방과 마주쳤을 때 그가 가진 모든 용기를 동원해야 하므로

스포츠 활동은 용기를 발달시키는 무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Mckenie(1926)는 “스포츠는 인간 활동에 필요한 용기를 길러주는 기본적 수단이다.”라고 했다. 즉 운동 경기는 가장 근원적이고 명확한 형태의 경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스포츠의 경쟁성은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경험하게 될 시련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인내심과 정신력을 육성하고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김관훈, 1987).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유형인 충성심과 이타심은 농구, 축구, 야구 등의 단체경기의 경우에서 구조상 혹은 목표상 요구되는 인간 특성이지만 반면 개인 경기에서는 바람직한 태도로서 요구되는 단체정신의 산물이다.

충성심의 가치에 대해 Gavit(1925)는 “운동 경기는 한 개인이 집단의 이익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가장 좋은 훈련을 제공한다. 즉, 자신보다 중요한 이상에 대한 충성을 위해 자신의 기호와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타심의 가치는 협동, 동료애, 비이기적인 태도의 형성, 형제애, 혹은 스포츠 참가의 최종 산물로서 중요시 한다. Neuman (1917)은 “운동경기의 도덕적 가치는 풍부하며 그것은 팀워크를 발전시키고 특히 충성심의 바람직한 윤리를 계발하고 승패에 집착하지 않는 관용을 갖게 한다”. 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김관훈, 1987). 이와 같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로는 사회적응력 배양, 경쟁심 및 이타심 함양, 규칙존중, 인내심 및 자신감 발달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스포츠의 기능

일반적으로 스포츠의 가치란 특정 상황의 규범적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에 대한 사회적 평가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반면에 스포츠의 기능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행동적, 현시적 측면이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tevenson과 Nixon(1976)은 스포츠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개인적 수준에서 작용하고, 개인의 사회심리적 안정과

관계가 있는 사회정서적 기능. 둘째, 개인적 수준에서 작용하고, 한 사회의 문화적 습성과 관습의 습득 및 인성특성의 발달과 관계가 있는 사회화 기능. 셋째, 집단적 수준에서 작용하고,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개인들을 동질화시켜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 속으로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사회통합 기능. 넷째, 개인적, 집단적, 국가적 수준에서 작용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한정된 계층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사회이동 기능. 다섯째, 개인적, 집단적, 국가적 수준에서 작용하고, 특정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를 습득하게 하는 문화 주입 기능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능 중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의 기능으로서 사회정서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 통합 기능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정서적 기능

사회정서적 기능은 개인의 사회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사회심리적 안정이란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을 의미한다.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안정된 상태는 그가 사회적, 심리적으로 그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개인은 자기가 속한 사회 안에서 규범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서적 기능의 내용은 다음의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Stevenson and Nixon, 1976). 첫째로, 긴장과 갈등의 조절을 들 수 있다. 스포츠는 긴장, 공격성, 좌절 등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정화능력을 갖고 있다. 즉 스포츠는 기쁨, 미움, 슬픔 등 극단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참가자도 공격성과 감정을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인 동질화에 의해 정화를 이룰 수 있다(Denney, 1976; Hopcraft, 1971). 둘째는 연대감 및 동질감을 들 수 있다. 스포츠 참가는 스포츠 연맹, 슈퍼스타 클럽, 팬클럽 등과 같은 참가자 집단 주변과 연대감을 증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비참가자들에게도 우애감과 연대감을 가져다 주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한다. 즉, 스포츠는 우정을 발전시키고 연대감을 확장시킴으로써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참가가 동료들 사이뿐만

아니라 적대관계 사이에도 연대감과 강한 우정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Charnofsky 1968). 셋째로, 축제성을 들 수 있다. 축제성은 현존하는 사회구조와 문화적 신념의 체제를 유지하는 확신과 현체제의 유지와 신념의 안정을 보장하는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스포츠는 관습으로 이해되고 있고 스포츠의 규칙과 승부는 사회 위계 현상을 상징한다. 스포츠 장면에서 표현되는 감정의 강도는 상당한 카타르시스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교적인 감정과 비교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이 극단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결과로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김관훈, 1987).

(2) 사회화 기능

사회화란 개인이 사회집단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 지식, 규범 등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사회체계로서의 스포츠를 전체 사회에 대해 의미있는 소우주 (microcosm)로 이해한다면 (Kenyon and Mcpherson, 1981), 스포츠 사회화는 사회화의 일반적인 개념과 같이 소사회에서 스포츠를 통해 특정집단의 가치, 신념, 태도 등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유형지우고 자신의 위치에 상응하는 많은 역할을 지니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의 사회화 기능과 관련된 첫번째 기능은 강화와 모형이다. 강화는 사회적 역할의 습득과 수행에 있어서 상과 벌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직접적인 상과 벌은 행동의 학습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관점에서 행동이 벌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강화되면 행동이 억제되고 행동의 변화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강화되면 그 행동이 유발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모형은 피사회화자(socializee)가 사회주관자(socializer)에 노출되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화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행동형태의 구체적인 보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들의 내면에 있는 신념체계도 제공한다. 스포츠에서 이러한 바람직한 행동형태와 신념체계를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수

선수로서 유망한 사회화 대상자에게 모형으로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두번째 기능은 사회화 주관자이다. 스포츠 참가와 스포츠 역할 학습의 과정에서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체는 스포츠 사회화 주관자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사회화란 특정의 기능, 특질, 가치 등에 의해 스포츠 역할이 수행되는 과정이므로 이를 전달해 주는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실체는 가족, 동료집단,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사고, 태도 및 행동은 개인의 태도, 가치관의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Leonard,1980).

(3) 사회 통합 기능

스포츠의 사회 통합 기능이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을 집단 속으로 조화롭게 흡수하고 그 집단 구성원으로서 개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사회 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신념과 행동형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에 준하여 행동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의 참가에 있어 한팀의 구성원이 되거나 클럽의 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을 그 팀이나 클럽 속으로 통합하기에 충분한 대인 결속을 필요로 한다.

참가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면 그가 속한 집단보다 큰 집단 속으로 동질화되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그 집단에 속하기 위해 그의 통합을 확장하게 된다.

한편 비참가자의 통합에 영향을 주는 수단은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들 수 있다. 이 구분은 실제로 어떤 집단에 속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집단에 속한다는 느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분류이다. 따라서 내집단이란 개인이 실제로 속할 뿐만 아니라,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일체감을 갖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 연대감과 형제적인 감정을 갖는다. 그리하여 타 구성원들의 성공을 자기의 성공으로, 실패를 자기의 실패로 생각한다. 스포츠는 그 성격상 이러한 이원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한 집단과 어떤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이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참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타집단을

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소수의 스포츠 사회심리 학자들이 스포츠 참가와 비행과의 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동태적 관계를 매개해주는 사회 심리학적 과정에 관한 연구가 다소 논의되어오고 있다(Segrave,1980; Segrave and Hastad,1984; Hastad, Segrave, Pangraz and Petersen,1984; Segrave, Moreau and Hasted,1988 rlarhksgns, 1987).

Segrave(1972)는 고등학교와 대학에 있어서 운동경기 참가자 및 남자 운동선수에게 비행에 관한 자기평가 질문 문항을 수행한 자료의 분석 결과 비행적 행동에 대답한 운동선수의 비율은 49%로 비행운동선수의 79%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중범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 운동선수는 31%인데 반해 비운동선수는 70%가 중범죄로 높게 나타났다(김관훈,1987).

Buhrman(1977)은 미국 아이오아주의 고등학교 1,2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선수는 비운동선수보다 그리고 운동선수 중 기능이 뛰어나고 훌륭한 선수가 그렇지 못한 선수보다 비행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정영린,1987). 그리고 Segrave 와 Chu(1978)도 미국에 있어서의 과외 자율활동 중 운동경기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에 있어서 운동경기 프로그램은 비행행동을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외에도 Segrave 와 Hastad(1984)는 미국 고등학교 학생 1,935명을 성, 연령, 인종, 거주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관련 변인에 따라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운동경기 참가자가 비참가자보다 비행행동이 낮으며, 운동경기가 학교에 애착이 없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 애착심을 갖게 하는 보유의 메카니즘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관훈(1987)의 운동선수 198(남: 105, 여: 93)명과 비운동선수 483(남: 244, 여: 239)명을 대상으로 한 운동선수의 비행 요인에 관한 경로 분석적 연구에서는 비행의 결정요인이 운동선수의 경험, 비행접촉, 자아개념, 학교에 대한 애착 등으로 나타났다.

정영린(1987)은 스포츠 참가자 326(남: 130, 여: 253)명과 비행경험자 383(남: 130, 여: 253)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스포츠 참가 경험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수준은 가정생활 비행의 경우 참가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하여 $p < .05$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생활 비행과 사회생활 비행은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 참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없는 청소년보다 가정생활 비행인 무단가출, 절도에서만 낮은 수준을 보이고있다.

Thorlindsson(1989)는 아일랜드 청소년 (12세-15세)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와 흡연, 알콜 섭취, 약물복용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스포츠 참여 형태를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한 집단은 정식으로 조직화된 스포츠 클럽에 가입한 경우와 정식으로 클럽에 가입하여 운동 참여 유무를 모르는 집단으로 설정하여. 남서부 도시에 거주하는 12-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집단에 대해 무선표집(456명과 358명 집단)을 하였다. 분석 결과 비행의 척도와 스포츠 참여 간의 동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12관계중 3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 성, 사회계층, 연령 변인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역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분석 결과 청소년, 스포츠 참여, 약물복용, 알콜 섭취간에 동적인 관계를 보였다.

구창모(1991)는 '체육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역사회의 체육환경이 좋을수록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나 소속집단에 대한 애착이 높으므로 낮은 비행수준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도가 높을수록 비행수준은 낮다. 셋째 청소년의 소속집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비행을 저하시킨다. 넷째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은 낮게 나타난다. 다섯째 권태감을 적게 느낄수록 비행수준은 낮게 나타난다. 여섯째 비행접촉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은 낮게 나타난다. 일곱째 비행적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은 낮게 나타난다. 이는 스포츠 참여도가 높을수록 비행수준이 낮아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는 스포츠 및 운동경기에의 참가가 참가자 개인의 사회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 비행율 감소 또는 방지하는 스포츠의 순기능적인 관점을 밝히고 있다. 즉 스포츠나 운동경기가 참가자의 비행행동 습득과 전달을 막아주고 긍정적인 사회화 결과를 제시해 주는 연구 결과로서 스포츠 참가자는 비참가자보다 낮은 비행수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표집

본 연구는 1995년 3월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 678명과 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613명, 총 1,2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은 일반학생들인 경우는 다단계군집표집법(multistage cluster sampling method)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첫 단계로 교육구에 따라 3개 시군으로 구분한 다음 난수표를 이용하여 각 군에서 특정학급, 학년을 선정한 후, 선정된 학급에서 학생들을 표집하였다.

운동선수인 경우는 체계적 군집표집법(systematic cluster sampling method)에 의해 실시되었다. 운동선수는 지역적인 선수의 분포를 파악한 후 각 단체, 대인, 개인으로 구분하여 무선으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집된 대상자들의 특성은 <표-1>과 같다.

<표-1>, 연구대상의 특성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일반학생	261	210	471	212	243	455	926
운동선수	125	82	207	95	64	159	366
계	386	292	678	307	307	614	1,292

2. 측정도구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비행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창모(1991), 김관훈(1978), Segrave 와 Hastad(1984) 등의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 비행 질문지 및 사회 심리적 매개변인들의 측정지를 작성한 다음 예비

조사를 통하여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거쳐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신뢰도 측정은 내적 일관성 계수로서 활용되는 Cronbach's Alpha값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주요 구성내용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인 측정

비행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문화적 규범의 허용한계를 벗어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중시하여 13가지의 비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의 경험 유무를 질문하였다. 각 문항은 1점부터 5점까지의 5단계 빈도척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독립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스포츠 참가, 시설만족도 소속집단(학교)에 대한 애착, 자아개념, 권태, 비행접촉, 비행적 가치, 스포츠 태도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1) 스포츠 참가 및 시설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직접 참가의 빈도(1문항)와 간접참가의 수준 (1문항)만을 측정하였다.

직접참가의 빈도는 스포츠 사회화에 관한 연구(Snyder & Spreitzer, 1974; Greendorfer, 1976; 임변장, 1986 ; 구창모, 1991,)에서 사용된 빈도 구성을 바탕으로 '거의 매일', '1주일에 4-5회', '1주일에 2-3회', '일주일에 1회', '한달에 2-3회', '한달에 1회', '거의 하지 않는다'로 빈도척도를 구성하였다.

또한 간접 참가의 수준은 스포츠 중계 관람(1문항) 내용을 통해 Likert의 5단계 평정법을 이용하여 '매우 자주', '자주', '약간', '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로 빈도 척도를 구성한 후 각각 5점에서 1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스포츠 참가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만족도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체육 시설 및 기구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매우 만족(1)에서 매우 불만족 (5점)의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피험자의 점수는 3개 문항의 피험자들 점수를 합한 것으로 하였다.

(2) 학교에 대한 애착

Hirschi(1969)의 질문 문항을 기초로 하고 김관훈(1987)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의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 활동에 대한 평가로써 학교 친구에 대한 만족, 학교 생활의 적극성,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 문제에 대한 교사의 태도 등을 나타내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1점부터 5점까지의 다섯 범주로 되어 있다. 피험자의 점수는 높은 점수가 높은 애착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피험자의 점수는 4개 문항에 대한 피험자들의 점수를 합한 것으로 하였다.

(3) 비행접촉

비행접촉을 측정하기 위해서 Short(1958)가 만든 4개의 질문 문항에 대해 김관훈(1987)이 번안하여 사용했던 것을 이용하였다. 비행자와의 접촉정도는 일반적 접촉정도와 각 차원별 접촉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비행접촉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질문 문항마다 “전혀없다”, “한두명 있다”, “조금 있다”, 그리고 “매우많다”의 선택을 두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4) 비행적 가치

비행적 가치에 대한 측정은 구창모(1991)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비행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1문항), 준법정신(1문항), 도덕적 판단기준(3문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적으로 동의”, “동의하는 편”, “보통”, “반대하는 편”, “매우반대”, 의 Likert식 5단계의 종합 평점법을 이용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적 가치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5) 자아개념

자아개념에 대한 측정은 임상적 입장에서 신체적, 도덕적, 성격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의 5차원을 포함하여 구성된 Fitts(1971)의 자아개념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맞게 재구성한 정원식(1968)의 자아개념 척도를 기초로 하였다.

정원식(1968)의 자아개념 척도는 5점 척도로 각 차원당 2개의 문항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의 평가적 차원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전체 문장을 생략한 두개의 양극형용사(adjective pairs)로 구성된 의미미분 척도(semantic differential)를 사용하여 10문항의 형용사 상에 5점 척도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6) 권태감

권태감의 측정은 일상 생활에서 무료하거나 따분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의 느낌 정도(2문항)를 “매우 자주 느낀다”, “자주 느낀다”, “가끔 느낀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의 5단계 척도로 구분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권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7) 스포츠의 태도

스포츠에 대한 가치(태도)는 Spreitzer 와 Snyder(1975)가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가치지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했던 질문 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적으로 반대 (1)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5)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득점 분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스포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3) 배경변인

배경변인에는 연령, 성별, 현재의 거주지를 묻는 인구학적 변인의 3문항이 있고, 가족의 수입, 부모 가장의 직업, 가장의 학력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문항이 4개 있다. 그리고 대상자의 학교 구분에 대한 1문항과 운동선수 지위 여부를 묻는 2문항이 첨가되어 있다.

사회 계층적 지위를 측정하는데는 직업, 교육, 수입, 재산, 가족형태, 거주 지역 등의 여러 요소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의 직업, 교육수준, 수입을 그 지표로 삼아 측정하였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지위는 이 3항목의 점수를 합한 합성점수로 측정하였다.

예비조사는 중학교 학생 100명(남:50, 여:50)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질문지 이해도, 응답완료 시간, 실시상의 문제점 등과 도구들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이루어졌다.

질문지들의 논리적 타당도는 선행연구(구창모, 1991; 김관훈, 1987; Short, 1958; 정원식, 1968; Hirschi, 1969; Spreitzer and Snyder, 1975)를 통하여 제시되었으며 번안된 질문지의 타당도는 액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구하였다.

질문지의 신뢰도 검사는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계수인 Cronbach's Alpha값으로 측정하였는데 학교에 대한 애착(Alpha=.487), 비행 접촉(Alpha=.823), 비행적 가치(Alpha=.764), 자아개념(Alpha=.778), 권태감(Alpha=.879), 스포츠 태도(Alpha=.679), 비행행동(Alpha=.796)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1) 자료수집

질문지 조사는 표집 규칙에 따라 본 연구자가 직접 사전에 조사 지역을 방문하여 담당교사 및 학교장의 협조를 받아 정규 체육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선수인 경우는 방과후 연습시간에 코치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를 조사 대상 학생들에게 배포한 다음 편안한 상태에서 질문 내용에 응답하도록 설명하고, 질문에는 도움 설명을 주었으며 완성된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조사 기간은 1995년 2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6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는 무응답이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거시키는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 1,268명을 자료분석에 행하였다.

2) 자료처리

자료는 분석 목적에 따라 각 사례별로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다음 SPSSPC+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1) 배경변인들에 따른 비행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2) 사회심리적 배경변인들과 비행행동간의 상관을 분석하기 위해서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계수를 구하였다

(3) 사회심리적 매개변인들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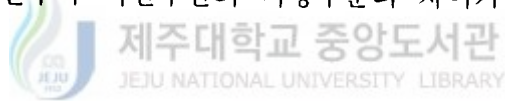
1. 성별 학교수준에 따른 선수와 비선수의 비행수준 분석

<표-2>는 선수와 비선수간의 비행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수들이 비선수들보다 비행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2> 선수와 비선수간의 비행수준의 차이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P
선수	351	1.87	.67	1,266	41.78	.000
비선수	917	1.67	.45			

성별에 따른 선수와 비선수의 비행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3> 남학생인 경우는 선수가 비선수보다 비행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인 경우는 선수와 비선수간의 비행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3> 성별에 따른 선수와 비선수의 비행수준의 차이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P	
남학생	선수	218	1.99	.56	1,695	16.70	.000
	비선수	459	1.82	.49			
여학생	선수	133	1.57	.35	1,587	3.35	.067
	비선수	456	1.51	.33			

한편, 학교수준에 따른 선수와 비선수간의 비행수준을 분석한 결과

<표-4>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선수가 비선수보다 비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비행의 경우가 많아야 1~2번의 수준에 그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 학교수준에 따른 선수와 비선수의 비행수준 분석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P	
중학교	선수	191	1.84	.62	1,651	36.72	.000
	비선수	462	1.59	.39			
고등학교	선수	159	1.91	.59	1,607	11.76	.000
	비선수	450	1.74	.49			

2. 경기지위와 성에 따른 비행행동과 관련변인들의 관계 분석

<표-5>는 13개의 개인적 특징 및 사회·심리적 변인들과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비행수준간의 관계를 운동경기지위와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표-5> 운동경기 참여와 성에 따른 비행행동과 13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독립변인	선수 (356)	비선수 (928)	남자선수 (221)	남자비선수 (467)	여자선수 (135)	여자비선수 (459)
연령	.165	.244***	.088	.319***	-.045	.183***
사회경제적지위	.047	-.068*	.008	-.102*	.082	-.012
생활수준	-.128*	.154***	-.100	.188***	-.229*	.126**
학교수준	.080	.173***	.131*	.268***	-.009	.110*
스포츠참여	-.032	-1.78***	.007	-.053	.047	.065
경기관람	-.108*	.079*	.115	.083	.006	.116*
체육시설만족도	.153**	.111**	.144*	.154**	.069	.133**
학교에대한애착	.077	-.087**	.055	-.102*	.190*	-.107*
비행접촉	.347***	.295***	.284***	.260***	.595***	.344***
비행적가치	-.371***	-.305***	-.360***	-.271***	-.393***	-.360***
자기개념	.271***	.133***	.332***	-.098	.148	.271***
권태감	-.339***	-.233***	-.338***	-.178***	-.468***	-.342***
스포츠가치	-.150**	.083*	-.235**	.029	-.165	.006

*p< .05 **p< .01 ***p< .001 (이하 동일함)

일반적으로 비행행동과 관련변인 등의 상관관계는 선수보다 비선수들 사이에서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표-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선수인 경우는 생활수준($r=-.128$), 경기관람수준($r=-.108$), 체육시설만족도($r=.153$), 비행접촉($r=.347$), 비행의 가치($r=-.371$), 자기개념($r=.271$), 권태감($r=-.339$), 스포츠 가치($r=-.150$) 변인들이 비행행동과 유의하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행적 가치, 비행접촉, 권태감 변인들이 다른 변인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비선수의 경우는 13개의 모든 변인들이 비행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행적 가치($r=-.305$), 비행접촉($r=.295$), 연령($r=.244$), 권태감($r=-.233$)이 0.001 수준에서 비행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변인들이 비선수의 비행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변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남자 선수인 경우는 비행적 가치($r=-.360$), 권태감($r=-.338$), 자기개념($r=.332$), 비행접촉($r=.284$), 스포츠 가치($r=.1235$), 체육시설 만족도($r=.144$), 학교수준($r=.131$)이 비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선수인 경우는 비행접촉($r=.595$)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권태감($r=-.468$), 비행적 가치($r=.393$), 생활수준($r=.229$), 학교에 대한 애착($r=.190$) 순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남학생 비선수의 경우는 연령($r=.319$)이 비행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비행적 가치($r=-.271$), 학교수준($r=.268$), 비행접촉($r=.260$), 권태감($r=.178$), 체육시설만족도($r=.154$) 순으로 비행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학생 비선수의 경우는 비행적 가치($r=-.366$)가 비행행동과 가장 상관이 높았으며, 비행접촉($r=.344$), 권태감($r=.342$), 자기개념($r=.271$), 연령($r=.183$), 생활수준($r=.126$), 경기관람횟수($r=.116$), 학교수준($r=.110$) 순으로 비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 변인과 비행행동과의 관계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론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13개의 관련 변인들 모두가 선수보다는 비선수의

비행행동과 더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행접촉, 비행적 가치, 권태감이 모든 수준에서 비행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변인들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3. 비행수준을 예측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기여도 분석

양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상관분석의 한계점은 남.여, 선수.비선수 간의 비행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독특한 기여도를 분석하지 못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분석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6개의 개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들은 <표-6>, <표-7>, <표-8>에 제시되어 있으며, 선수와 비선수 간의 비행행동의 원인론에서는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비행접촉, 비행적 가치, 자기개념, 권태감의 4변인이 남.여/선수.비선수의 비행행동의 설명 변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의 위계적 서열 및 회귀계수의 크기는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선수와 비선수간의 비행행동의 원인론에서 특정한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6>의 자료에서 보면, 선수들의 경우 13개의 변인중 7개의 변인이 비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들 변인들은 전체 분산의 37%를 설명하고 있다[F(13,265)=11.98,P<0.000].

각 변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비행적 가치(beta=.28)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자기개념(beta=.25), 비행접촉(beta=.19), 스포츠시설 만족도(beta=.18), 권태감(beta=-.17), 생활수준(beta=-.12), 스포츠 가치(beta=-.11) 순으로 나타났다.

<표-6> 선수와 비선수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독립변인	선수			비선수		
	B	Beta	T	B	Beta	T
연령	.06	.13	1.48	.08	.24	3.98***
사회경제적지위	2.26E	9.39E	.17	9.41E	5.05E	.15
생활수준	-.12	-.12	-2.18*	.04	.06	1.75
학교수준	-.14	-.11	-1.34	-.09	-.10	-1.72
스포츠참여빈도	-.01	-.05	-.89	-.04	-.19	-5.56***
스포츠관람빈도	-.06	-.08	-1.70	.03	.06	1.92
스포츠시설만족도	.05	.18	3.45***	7.09	.03	.96
학교에대한애착	.07	.06	1.27	-.04	-.05	-1.54
비행접촉	.16	.19	3.59***	.18	.20	6.23***
비행적가치	-.25	-.28	-5.12***	-.13	-.18	-5.21***
자기개념	.27	.25	4.86***	.10	.12	3.56***
권태감	-.14	-.17	-3.09**	-.07	-.11	-3.21**
스포츠가치	-.11	-.11	-2.10*	.04	.06	1.87
	Multiple R		.61	Multiple R		.51
	R square		.37	R square		.26
	Adjusted R square		.33	Adjusted R square		.25
	Standard error		.49	Standard error		.39

비선수인 일반학생인 경우는 13개의 변인중 6개의 변인이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변인들은 전체 분산의 26%를 설명해 주고 있다 [F(13,714)=19.47, P<0.000]. 개별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연령(beta=.24)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비행접촉(beta=.20), 스포츠 참여빈도(beta=-.19), 비행적 가치(beta=-.18), 자기개념(beta=.12), 권태감(beta=-.11) 순으로 나타났다.

<표-7>은 13개의 관련변인들이 남자 선수.비선수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7>에 의하면 남자선수인 경우는 스포츠시설 만족도, 비행접촉, 비행적 가치, 자기개념, 권태감, 스포츠 가치의 6변인이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변인이 전체 분산의 39.3% 정도 설명하고 있다 [F(13,170)=8.47 P<.000]. 개별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자기개념(beta=.32)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이 비행적 가치(beta=-.29), 스포츠시설 만족도(beta=.20), 권태감(beta=-.17), 비행접촉

(beta=.16), 스포츠 가치(beta=.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7> 남자선수와 비선수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독립변인	남자선수			남자비선수		
	B	Beta	T	B	Beta	T
연령	.10	.17	1.48	.10	.24	2.81**
사회경제적지위	5.04E	.02	.28	-2.14E	-.10	-.20
생활수준	-.13	-.13	-1.73	.07	.08	1.59
학교수준	-.22	-.17	-1.41	-.07	-.06	-.75
스포츠참여빈도	-4.89E	-.01	-.22	-.03	-.10	-1.99*
스포츠관람빈도	-.05	-.06	-.99	.04	.07	1.37
스포츠시설만족도	.06	.20	3.08**	.02	.06	1.29
학교에대한애착	.04	.03	.53	-.07	-.07	-1.37
비행접촉	.13	.16	2.45*	.17	.20	4.03***
비행적가치	-.26	-.29	-4.32***	-.12	-.15	-2.97**
자기개념	.34	.32	4.94***	.12	.14	2.84**
권태감	-.15	-.17	-2.49*	-.05	-.07	-1.37
스포츠가치	-.16	-.15	-2.36*	.03	.04	.80
	Multiple R		.627	Multiple R		.472
	R square		.393	R square		.223
	Adjusted R square		.347	Adjusted R square		.195
	Standard error		.526	Standard error		.456

한편 남자 비선수의 경우는 연령, 스포츠 참여 빈도, 비행접촉, 비행적 가치, 자기개념의 5변인이 비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이 전체 분산의 22.3% 정도 설명하고 있다 [F(13,358)=7.91 P<0.000].

각 변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연령(beta=.24)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비행접촉(beta=.20), 비행적 가치(beta=-.15), 자기개념(beta=.14), 스포츠 참여빈도(beta=-.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7>에서 알 수 있는 특이한 사실은 비행접촉이 남자 선수보다 비선수의 비행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자 선수와 비선

수의 자기개념 수준이 부정적일수록 비행행동의 점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8>은 13개의 관련변인들이 여자 선수, 비선수의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8>에 의하면 여자선수인 경우는 연령, 비행접촉, 권태감의 3변인만이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이 전체 분산의 56%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F(13,18)=7.84 P<.000]. 개별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비행접촉(beta=.49)이 전체 분산의 35.4%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연령(beta=.28), 권태감(beta=-.24) 순으로 나타났다.

<표-8> 여자선수와 비선수간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독립변인	여자선수			여자비선수		
	B	Beta	T	B	Beta	T
연령	-.06	-.28	-2.02*	.04	.16	1.79
사회경제적 지위	6.57E	.04	.49	1.18E	9.16E	.18
생활수준	-.08	-.12	-1.60	7.90E	.01	.26
학교수준	.20	.28	1.89	-.07	-.11	-1.23
스포츠참여 빈도	8.41	.06	.65	3.68	.02	.44
스포츠관람 빈도	-.06	-.15	-1.78	.01	.02	.77
스포츠시설 만족도	4.69E	.03	.35	5.02E	.03	.69
학교에대한 애착	.10	.17	1.87	-.04	-.07	-1.48
비행접촉	.27	.49	5.38***	.15	.23	4.84***
비행적가치	-.06	-.11	-1.21	-.11	-.21	-4.32***
자기개념	.03	.04	.49	.08	.14	2.74**
권태감	-.13	-.24	-2.74**	-.09	-.20	-3.86***
스포츠가치	-.09	-.15	-1.79	.03	.05	1.04
	Multiple R		.74	Multiple R		.55
	R square		.56	R square		.30
	Adjusted R square		.49	Adjusted R square		.27
	Standard error		.25	Standard error		.27

여자 비 선수인 경우는 비행접촉, 비행적 가치, 자아개념, 권태감이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이 전체 분산의 30.1% 정도 설명하고 있다 [F(13,342)=11.35 P<0.000]. 개별변인들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비행접촉(beta=.23)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비행적 가치(beta=-.21), 권태감(beta=-.20), 자아개념(beta=.14)의 순으로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V. 논 의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와 비행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두 변인 간에는 역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계의 토대를 이루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환경적 변인들의 중재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스포츠 참여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장면에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및 사회심리적 변인들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여 선수/비선수들 간의 비행 원인론에서 13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규명하는데 있다.

먼저 성별과 학교수준에 따른 선수와 비선수의 비행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선수가 비선수보다 비행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영린(1987), 김관훈(1988), Segrave와 Hastad(1982), Segrave와 Hastad(1984), Segrave와 Chu(1978) 등의 일반적인 선행연구의 결과와 불일치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적인 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운동선수가 비운동선수에 비해 청소년 비행수준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참여빈도 변인이 남·여 비운동선수의 비행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남으로써 스포츠 참여여부가 비행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의 주장과는 일치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처럼 운동경기가 실제로 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Lueschen(1979)은 전체적으로 볼 때, 스포츠는 일탈행동과 부적인 관계도 있지만 정적인 관계도 존재할 수 있다고 시사함으로써, 비행은 건전한 스포츠맨십을 망각하여 상업성이 강조되거나, 지나친 승부욕, 명예욕, 보상 등을 추구하게 되는 등 스포츠 경기의 조야함 속에서 학습될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Thrasher(1963)는 반사회적인 비행을 자행하는 갱들은

각종 스포츠 집단에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비행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사실은 비선수인 경우 연령변인이 비행수준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결과에서 지지된다.

본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내에서 남·여 선수와 비선수의 비행행동의 원인론에서는 유사한 유형을 보여주었으며, 비행접촉, 비행적 가치, 자아개념, 권태감의 4변인이 남·여선수 비선수의 비행행동의 설명 변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4개의 샘플에서 비행행동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차별이론에서 제기된 비행접촉변인이었다. 즉,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가장 특출한 변인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히 여자선수집단을 제외하고는 선수집단보다 비선수집단에서 비행접촉 정도가 많을수록 비행수준이 높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Segrave와 Hastad(1984), Johnson(1979)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Johnson(1979)는 자신의 연구에서 비행을 최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통제변인들과 차별교제변인들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학교에 대한 애착, 스포츠의 가치)보다 차별교제변인(비행접촉)이 더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와 비선수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선수인 경우는 비행적 가치변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운동선수인 경우는 연령변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선수들의 운동참여 빈도와 비행수준간에 역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스포츠 참여 빈도가 높은 학생이 비행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운동선수인 경우 스포츠 시설이라는 체육환경변인의 만족도와 비행수준이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스포츠 시설이 불만족한 선수들일수록 비행수준도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김관훈,1987; 구창모,1991; Segrave 와 Hastad, 1984)는 학교에 대한 애착변인들이 비행수준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결

과를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분석에서 학교에 대한 애착변인과 비행행동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학교에 대한 애착변인들을 구성하는 4개의 개별문항과 그들의 전체합과의 상관으로 문항동질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에서 Cronbach's Alpha값이 다른 변인들보다 낮다($\alpha=0.48$)는데에 부분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본 연구의 설계 자체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주는 결과일 수 있으므로 좀더 체계적인 문항구성으로 재현한다면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관계가 지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자아개념과 비행수준과의 관계는 운동선수, 비선수 모두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청소년이 비행에 빠지기 쉽다는 Reckless(1961)의 결과 및 Burman과 Bratlom(1978)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구창모(1991)는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비행수준이 낮으며 스포츠 참여도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선수인 경우는 스포츠에 대한 가치가 부정적일수록 비행수준도 높게 나타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변인은 선수들의 비행수준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선수들 자신이 인지한 가정생활 수준의 정도와 비행수준과도 부적인 관계를 보임으로써 생활 수준이 낮은 선수들이 비행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남학생들을 선수와 비선수로 나누어 13개 변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는 성별을 분리하지 않고 선수와 비선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남자선수는 권태감 변인과 비행수준이 역의 상관관을 보이고 있으나 비운동선수의 비행수준과 권태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여학생들을 선수와 비선수로 나누어 13개 변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로 분석한 결과, 여자선수인 경우는 비행접촉, 연령, 권태감 변인들만이 비행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비행친구와 접촉이 많을수록 권태감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비행수준이 높다고 예언할 수 있다. 여자 일반학생은 비행접촉, 비행적 가치, 자아개념, 권태감변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선수인 여학생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행접촉이 많을수록 비행적 가치가 부정적일수록, 자아개념이 부정적일수록, 권태감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수준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차별교제이론의 맥락 내에서 가장 잘 해석할 수 있었으며, 통제이론의 부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중다회귀분석에서 13개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비행수준 예측력이 낮기는 하지만 다변량 분석에 기초하여 비행행동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선행연구들의 설명력과 비교하면 그 의미가 높다고 본다. 예를 들어 Segrave 와 Hastad(1984)는 12개의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설명력이 15~25%의 범위였으며, Johnson(1979)는 10개의 사회심리적 변인들을 토대로한 경로 분석 모형에서 비행수준의 설명력은 27%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Cernkovich(1979)는 구조모형과 통제모형의 변인들을 단순회귀분석에 투입했을 때 비행행동의 분산 14.5%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6개의 회귀모형에서 13개의 변인들이 비행행동의 설명력은 최저 22%~ 최고 56% 범위로 나타남으로써 선행연구들의 설명 크기와 비교할 때 그 의의가 높다고 본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들은 표집 분포가 제주도 내의 청소년에 제한되어 있으며, 측정도구의 표준화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제한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과 스포츠 참여와의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변인이 비행에 미치는 역동적 과정을 이해해야 하며, 스포츠를 통한 가치학습과 비행과의 관계, 비행통제와 관련된 스포츠의 구조적 요인 등 비행의 억제 및 방지에 기여하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변인의 규명이 요구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운동경기 참여와 비행간의 관계에 기초가 되는 역동적 과정의 예비적 자료를 도출해내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3개의 사회경제적, 체육환경적 그리고 사회심리적 변인들이 남.여 운동선수와 비운동선수의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남.여 고등학생 총 1,292명이었으며, 체계적 유층구집표집법으로 운동선수 366명과 비운동선수 926명을 표집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서 사용된 통계분석법은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이었다.

연구 문제에 의거하여 검증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운동선수들이 비운동선수보다 비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 남학생인 경우는 운동선수가 비운동선수보다 비행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인 경우는 운동선수와 비선수간의 비행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3.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운동선수가 비운동선수보다 비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4. 13개의 관련 변인들과 비행과의 상관관계는 선수보다 비선수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5. 비행접촉, 비행가치, 자기개념 및 권태감 4변인이 남.여 선수와 비선수의 비행의 설명 변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 선수들인 경우 13개의 변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는 비행적 가치, 자아개념, 비행접촉, 스포츠시설 만족도, 권태감, 생활수준, 스포츠 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비선수인 일반학생인 경우 13개 변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는 연령, 비행접촉, 스포츠 참여빈도, 비행적 가치, 자아개념, 권태감 순으로 나타났다.

7. 남학생 선수와 비선수의 비행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남자 선수인 경우, 상대적 중요도는 자아개념, 비행적 가치, 스포츠시설 만족도, 권태감, 비행접촉, 스포츠 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비운동선수들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연령, 비행접촉, 비행적 가치, 자아개념, 스포츠 참여빈도 요인이었다.

8. 여학생 운동선수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비행접촉, 연령, 권태감이었고 여학생 비선수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비행접촉, 비행적 가치, 자아개념, 권태감이었다.

참 고 문 헌

- 구경모 (1977). “자아개념검사 및 생활지도검사에 의한 정상집단과 비행집단의 판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구창모 (1991). “체육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관훈 (1987). “운동선수의 비행요인에 관한 경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영길 (1967). “정상소년 집단과 비행 청소년 집단에 대한 자아개념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정영린 (1987).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원식 (1968). 「자아개념검사 검사법 요강」, 코리아 테스트링 센터.
- 임변장 (1986). “스포츠 사회화에 있어서 경기성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임변장 (1986). “청소년 비행과 스포츠”. 청소년과 사회체육. 한국사회체육진흥회.
- 임변장 외 (1987). “스포츠 참여와 정치태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적 연구”. 연구논총. 서울 올림픽 학술대회조직위원회.
- 임변장 (1990). “도덕성 함양을 위한 사회체육의 역할”. 부산사회체육진흥회.
- 정태복 (1933).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일탈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주낙서 (1986). “국민체육진흥정책의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행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체육연구소 논집, 제7권, 제1호, 서울대학교 체육

연구소.

- 표갑수 (1986). "청소년 비행원인이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연구총서, 제3집.
- Becker, H. (1963). *Outsider: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 The Free Press.
- Bentson, T. B. & Summerskill, J. (1955). Relation of personal success in intercollegiate athletics to certain a specific of personal adjustment. *Research Quarterly*, 26, 8-14.
- Biddulph, L. G. (1954). Athletic achievement and the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of high school boys. *Research Quarterly*, 25, 31-35
- Brademas, J. (1955). The leisure time interests of fifty delinquent boys prior to commitment to the Illinois State Training School for boy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onis.
- Bucher, C. A. & Goldman, M. (1969). *Dimensions of physical education*. St. Louis: The C. V. Mosby.
- Burhman, H. G. (1977). Athletics and deviance :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hletics participation and deviant behavior of high school girls. *Review of Sport and Leisure*, 2, 17-35.
- Charmofsky, H. (1968). The major leagu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self-concept versus the popular image.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Sociology*, 3, 39-56
- Cloward, R. A., & Ohin, L. E. (1966). *Delinquency and opportunity*. New York : The Free Press.
- Cohen, A. K. (1959). The study of social disorganization and deviant behavior. In R. K. Merton et al. (Eds.), *Sociology today*, New York: Harcourt. Brace.
- Dinitz, S. (1967). *Deviance: Studies in the process of stigmatization and societal rea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onney, R. (1967). The Spectatorial Form in; J. H. Loy & J. S. Kenyon(Eds.), *Sport,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McMillan.
- Durkheim, E. (1951).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ms spaulding and simpson*. New York: Free Press.
- Edwards, H. (1973). *Sociology of sport*. Homewood, I L: The Dorsey Press.
- Educational Policies Commission. (1954). *School athletics: Problems and policies*. Washington, D.C.
- Ferdinand, T. (1966). *Typologies of delinquency : A critical analysis*. New York: The Free Press.
- Fitts, W. H.(1971). The self-concept and self realization. *Reserch Monograph, 3*, 3-34.
- Gavit, J. R. (1925). *College*. New York: Harcourt, Brace.
- Glaser, W. (1976). *Positive addiction*. New York. Harper & Row.
- Greendorfer, S.(1976).Socialization into sport. In C. Oglesby(Ed.), *Woman sport : Form myth to reality*. Philadelphia: Lea and Febiger.
- Greetz, C. (1972). Deep play: Notes on the balinese. *Cockfight Daedelus*, 1-35.
- Hasted, D.N., Segrave, J.O., Pangrazi, R. and petersen, G.(1984). Youth sport participation and Deviant Behavior. *Sociology of Sport Journal, 1, No. 4*, 366-373.
- Hirschi, T. (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mes, W. (1890). Self, Inc. Gordong and K. J. Gergen(Eds.), *The self in social interac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Kennedy, C.W.(1926). Effect of athletic competition on character Building. *The American Physical Education Review, 30*.

- Kenyon, G. S. & Mcpherson, B. D.(1981). Becoming involved in physical activity and sport: A process of socialization. In J.W. Loy, and Mcpherson, B. D. and Kenyon, G. S. (Eds.), *Sport, Culture and Society*, PP.217-237, Piladelphia: Lea and Fibiger.
- Kornhauser, R. R. (1984).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The University of Chicago.
- Landers, D. M. and Landers, D. M. (1978). Socilization via interscholastic athletics: It's effects on delinquency. *Sociology of Education*; 5, 229-303.
- Leonard, W. M. (1980).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port*. Minneapolis, MN : Burgess Publishing Company.
- Liska, A. (1981). *Perspective on devianc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Lueschen, G.(1976). Cheating in sport. D.M. Landers(Ed.), *Social Priblems in Athletic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66-77.
- Lueschen, G. (1976). The interdependence of sport and cultur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AAHPER Meeting.
- Mckenzie, R.T. (1928).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Sort in Education. *Proceedings: 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15*.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rton, R. K.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 Free Press.
- Neron, T. (1977). La Violence an hockey. Rapport Final De L'Etude Sur Le Violence Dans Le Hockey Amateur Au Quebec, Quebece: Quebece Government press.

- Parsons, T. (1951). *The social system*. Glencoe, I L : Free press.
- Reckless, W. C., Dinitz, S. (1967). Self concept as an insulator against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744-746.
- Rogers, C. D. (1982). *A social psychology of schooling*. London: Rouledge & Kegan Paul.
- Schafer, W. E. (1969). Participation in interscholastic athletics and delinquency: A preliminary analysis. *Social Problems*, 17, 40-47.
- Segrave, J.O.(1980). Delinquency and athletes : Review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 82-89.
- Segrave, J, O.(1983). Sport and juvenile delinquency. *Exercise and Sport Science Review*, 11, 181-209.
- Segrave, J. O. & Chu, D. (1978). Athletics and juvenile delinquency. *Review of Sport and Leisure*, 3, 1-24.
- Segrave, J. O. and Hastad, D.M. (1984). Future directions in sport and juvenile delinquency research, *Quest*, 36, 37-47.
- Segrave, J. O. & Moreau, C. & Hastad, D.N. (1985).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ice hockey participation and delinquency. *Sociology of Sport Journal*, 2, 281-298.
- Short, J. F. (1958).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delinquency. *Social Problems*, 4, 223-235.
- Snyder, E. E. & Spereitzer, E. S.(1974). Orientations toward sport: Intrinsic, normative, and extrinsic.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2), 170-175.
- Stevenson, C. L., & Nixon, J. E. (1979). A conceptual social function of sport. In A Yiannakis, T. D. Thomas, M. J. Melnick, & D. P. Hart(Eds.).*Sport sociology : Contemporary themes(2nd ed.)*. Dubuque, IW: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 Sutherland, E. & Cressey, D.(1966). *Principles of criminology*. Chicago :
Lippincott.
- Thrasher. F. M. (1963). *The ga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urner, R. H.(1964).*The Social Context of Ambition: A Study of
Higschool Seniors in Los Angeles*.
- Uirich, C. (1968). *The social matrix of physical education*.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Weiss, P. (1969). *Sport: A philosophical inquiry*. Carbondalt and
Edwardsvil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Yiannakis, A. (1980). Sport and deviance : A review and reappraisal.
Motor Skill, 4, 59-64



<Abstract>

A Study on the Sport Participa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Yoon, Sang-Taek

Physical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Im Sang-Y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preliminary data of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 participation and delinquent behavior.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13 socioeconomic, sport environmental and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in delinquent behavior among male and female athletes and nonathlete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1,292 male/female students from 19 selected middle schools(n=678) and high schools(n=613). Of the 1,292 in total sample, 336 were classified as athletes, and 926 were classified as nonathletes.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the sample. For the purpose of data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was used.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Nonathletes exhibited significantly less delinquent behavior than athletes.
2. Male nonathletes exhibited less delinquency than male athletes while, female athlet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female nonathletes in delinquent behavior.

3. Nonathletes exhibited significantly less delinquent behavior than athletes in both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4. The 13 variables showed greater relevance to delinquent behavior among nonathletes than athletes.
5. The four variables of delinquent associates, delinquent value, self-concept, and boredom accounted for the greatest amount of the explained variance in delinquent behavior among male and female athletes and nonathletes.
6. Of the 13 variables among athletes, seven predictor variables were predictive of delinquent behavior. Delinquent value was the best predictor and followed by self-concept, delinquent associates, satisfaction of sport facilities, boredom, life level and sport value. Among nonathletes five variables were predictive of delinquent behavior. Age was the best predictor and the next predictors followed by delinquent associates, delinquent value, self-concept and frequency of sport participation.
7. Among male athletes, six predictor variables were predictive of delinquent behavior. Self-concept was the best predictor and followed by delinquent value, satisfaction of sport facilities, boredom, delinquent associates and sport value. On the other hand, among male nonathletes, five predictor variables were predictive of delinquent behavior. Age was the best predictor and the next ranking order followed by delinquent associates, delinquent value, self-concept and frequency of sport participation.
8. Among female athletes, three predictor variables were predictive of delinquent behavior. Delinquent associates was the best predictor and followed by age, boredom. On the other hand, among female

nonathletes, four predictor variables were predictive of delinquent behavior. Delinquent associates was the best predictor and followed by delinquent value, self-concept and boredom.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5.

부 록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및 일상생활에 관한 조사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및 일상생활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청소년 여러분의 스포츠 참여 실태 및 일상생활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으니,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윤 상 택

1995년

각 물음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만 골라 해당하는
 난에 V표를 하거나 O표를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각 물음에 대한 보기에
 자신의 생각과 맞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란에 자유롭게 적어 주
 십시오.

문 1. 연 령 만 세

문 2. 성 별 _____ 1) 남 자 _____ 2) 여 자

문 3.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

_____ 1) 제주도 _____ 2) 서귀포시
 _____ 3) 북제주군 _____ 4) 남제주군

문 4. 귀하의 가족의 수입 (주수입과 부수입)을 모두 합하면 월평균 열
 마나 됩니까?

_____ 1) 50만원 이하 _____ 2) 51만원 - 70만원
 _____ 3) 71만원 - 90만원 _____ 4) 91만원 - 100만원
 _____ 5) 101만원 - 150만원 _____ 6) 151만원 - 200만원

문 5. 부모님의 직업은 ?

_____ 1) 근로자 (농업, 어업, 광업, 기능공, 목공, 운전기사)
 _____ 2) 판매직 (소매업, 도매업)
 _____ 3) 사무직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교사, 기술자)
 _____ 4) 관리직 (회사, 은행의 부장급 이상, 공무원 국장급 이상)
 _____ 5) 전문직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교수, 목사)
 _____ 6) 기 타

문 6. 가장의 학력은 ?

_____ 1) 국 졸
 _____ 2) 중 졸
 _____ 3) 고 졸
 _____ 4) 2년제 대학 졸업
 _____ 5) 4년제 대학 졸업
 _____ 6) 대학원 이상

문 7. 귀하의 가정은 우리 나라 전체 생활 수준에 비추어 볼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아주 잘 사는 편이다.
- ___ 2) 중간보다 잘 사는 편이다.
- ___ 3) 중간 정도이다.
- ___ 4) 중간보다 못 사는 편이다.
- ___ 5) 아주 못 사는 편이다.

문 8.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

- ___ 1) 중학교
- ___ 2) 고등학교

다음 질문은 여러분의 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난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문 9. 가) 귀하는 운동 선수로 활약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운동 선수도 포함)

- ___ 1) 예 ((나)로 가시오.)
- ___ 2) 아니오.(문 10으로 가시오.)

나) 어떤 운동 선수 였습니까?

- ___ 1) 도 대표 선수 (대한 체육회에 등록된 정식 운동선수)
- ___ 2) 학교 대표 선수
- ___ 3) 학교 체육대회나 교회, 서클의 운동선수
((다)로 가시오.)

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운동 종목은 ? ()

문 10. 당신은 요즈음 학교의 체육시간 이외의 스포츠(체육)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가하고 있습니까?

- ___ 1) 매 일
- ___ 2) 일주일에 4 - 5회 정도
- ___ 3) 일주일에 2 - 3일 정도
- ___ 4) 일주일에 하루 정도
- ___ 5) 한달에 2 - 3일 정도
- ___ 6) 한달에 한번 정도
- ___ 7) 거의 하지 않는다.

문 11. 당신은 요즈음 경기장에서 (또는 TV나 라디오를 통하여) 스포츠 중계를 얼마나 자주 관람합니까?

- 1) 매우 자주 한다. 2) 자주 하는 편이다,
 3) 약간 한다. 4) 거의 하지 않는다.
 5) 전혀 하지 않는다.

문 12. 당신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나 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가정의 체육시설 및 기구	1	2	3	4	5
2) 학교의 체육시설 및 기구	1	2	3	4	5
3) 지역사회 체육시설 및 기구	1	2	3	4	5

다음 질문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견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문 13. 여러분은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좋아한다. 2) 좋아한다. 3) 그저그렇다.
 4) 싫어한다. 5) 매우 싫어한다.

문 14. 선생님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하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지 않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 15. 당신은 학교에서 긴장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1) 자주 2) 가끔 3) 보통 4) 별로 5) 전혀

문 16.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담배를 파우는 것에 대해 학교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한다. 3) 보통이다
 4) 반대이다. 5) 매우 반대한다.

문 17. 다음과 같은 친구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있다면 몇명이나 있었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전혀 없다	2 한두명 있다.	3 조금 있다.	4 많다.	5 매우 많다
1) 당신이 가장 자주 접촉하여 온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비행청소년이 있었습니까(있습니까?)	1	2	3	4	5
2) 당신이 가장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비행 청소년이 있었습니까?	1	2	3	4	5
3)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맨 처음 사귀 친구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비행 청소년이 있었습니까?	1	2	3	4	5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였던 사람 중에 비행 청소년이 있었습니까?	1	2	3	4	5

문 18. 다음 문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전적 으로 동의	2 동의 하는 편	3 보통	4 반대 하는 편	5 매우 반대
1) 일단 목표를 세웠으면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2) 성공을 위하여는 다소간 옳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	1	2	3	4	5
3)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일로 바빠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심이 없을 것이다.	1	2	3	4	5

4) 걸리지만 않게 할 수 있다면
법을 다소 어기더라도 상관없는
일이다.

1 2 3 4 5

5) 청소년이 술,담배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1 2 3 4 5

문 19. 당신은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당난에 V 표
를 하여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

예)

	1	2	3	4	5	
정직하다	----- ----- ----- ----- -----					부정직하다

	1	2	3	4	5	
정직하다	----- ----- ----- ----- -----					부정직하다
올바르다	----- ----- ----- ----- -----					그르다
현명하다	----- ----- ----- ----- -----					어리석다
우수하다	----- ----- ----- ----- -----					열등하다
온순하다	----- ----- ----- ----- -----					거칠다
명랑하다	----- ----- ----- ----- -----					우울하다
사교적이다	----- ----- ----- ----- -----					비사교적이다
인기있다	----- ----- ----- ----- -----					인기없다
행복하다	----- ----- ----- ----- -----					불행하다
화목하다	----- ----- ----- ----- -----					화목하지않다

문 20. 귀하는 “할 일이 없다”고 느낀 본 적이 있습니까?

____ 1) 매우 자주 느낀다.

____ 2) 자주 느낀다.

____ 3) 가끔 느낀다.

____ 4) 거의 느끼지 않는다.

____ 5) 전혀 느끼지 않는다.

문 21. 귀하는 학교나 가정 생활이 무료하거나 따분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 1) 매우 자주 느낀다. 2) 자주 느낀다.
 3) 가끔 느낀다. 4) 거의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느끼지 않는다.

문 22. 다음과 같은 일을 하거나 경험해 본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2	3	4	5
	매우 자주 있다.	자주 있다	가끔 있다	한두번 있다	전혀 없다.
1) 당신은 지금까지 시험칠 때 부정행위(퀵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2) 당신은 거짓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3) 당신은 지금까지 집에서 귀중품(돈,시계,목걸이등)을 몰래 훔쳐 본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4)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괴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5) 당신은 단 한번이라도 부당하게 남을 때려 본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6) 당신은 남을 협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7) 당신은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 | | | | | | |
|--------------------------------------|---|---|---|---|---|
| 8) 당신은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있습니까? | 1 | 2 | 3 | 4 | 5 |
| 9) 당신은 본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 1 | 2 | 3 | 4 | 5 |
| 10) 당신은 금지 장소에 출입한 적이
있습니까? | 1 | 2 | 3 | 4 | 5 |
| 11) 당신은 이성과의 성행위를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 1 | 2 | 3 | 4 | 5 |
| 12) 당신은 무단결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1 | 2 | 3 | 4 | 5 |
| 13) 당신은 부모님에게 거친 반항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1 | 2 | 3 | 4 | 5 |

문 23. 다음은 스포츠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 | 1 | 2 | 3 | 4 | 5 |
|---------------------------------------|----------------|---------------|----|---------------|----------------|
| | 전적
으로
반대 | 반대
하는
편 | 보통 | 동의
하는
편 | 전적
으로
동의 |
| 1) 스포츠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 1 | 2 | 3 | 4 | 5 |
| 2) 스포츠는 젊은이에게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 준다. | 1 | 2 | 3 | 4 | 5 |
| 3) 스포츠는 우리에게 선의의 경
쟁과 협동심을 길러준다. | 1 | 2 | 3 | 4 | 5 |
| 4) 스포츠는 우리에게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쳐준다. | 1 | 2 | 3 | 4 | 5 |

- | | | | | | |
|--|---|---|---|---|---|
| 5) 스포츠를 통해 애국심을 고양
시킬 수 있다. | 1 | 2 | 3 | 4 | 5 |
| 6) 스포츠는 우리에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 1 | 2 | 3 | 4 | 5 |
| 7) 스포츠는 정정당당하고 공명
정대한 태도를 증진시켜 준다. | 1 | 2 | 3 | 4 | 5 |
| 8) 스포츠를 통해 자기수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 1 | 2 | 3 | 4 | 5 |
| 9)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지도자
자질이 개발된다. | 1 | 2 | 3 | 4 | 5 |
| 10) 스포츠는 건강과 체력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 | 1 | 2 | 3 | 4 | 5 |